



# “공사 파업, ‘보이지 않는 손’ 개입”

### 도의회 환도위, 개발공사 파업 사태 특별업무보고 “단체교섭 협상 의지 부족”... 도정 개입 의혹 제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노동조합의 파업이 8일 현재 13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중재에 나선 제주도의회가 노사협상 체결을 위한 사측의 의지 부족과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한림읍)는 8일 제주개발공사의 파업 사태와 관련 노사간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기 위한 특별업무보고를 가졌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김성연 제주시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박근수 환경보전국장, 이경호 제주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 허준석 제주개발공사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환도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노사가 실무교섭 등을 통해 당초 198개 조항에서 166개 조항이 담긴 간사협약안이 도출됐음에도 아직까지 체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문제의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화북동)은 “지난해 7월부터 계속 간격을 좁혀왔는데 10월, 11월에도 충분히 간격을 좁 더 좁힐 수 있었던 거 아닌가”라면서 “단체교섭과정을 보면 사측에서 열의를 갖고 했는지 의문이 생긴다”고 질타했다. 이어 사

측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고 뒤에서 누군가 된다. 안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도 “사장 직무대행에게 체결권한이 있는데 그럼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납득이 안간다”면서 “지금 예를 들어 직무대행이 권한이 있는데 그걸 쓰지 않았다면 ‘보이지 않는 손’이, 도정이 간섭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경호 사장 직무대행은

“166개 조항은 간사간 합의가 됐지만 당시 최종 체결권자인 CEO 판단에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최종 판단한 결과 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그분은 이제 아니다. 이제 위기 관리 능력은 자기 사장 선임전까지 직무대행이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풀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원철 위원장도 “노사가 실무교섭을 8차에 걸쳐 했고, 166개 조항에 대해 합의를 이뤄낸 것인데, 합의서 쓰는 과정으로 저로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고 밖에 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8일 진행한 제주개발공사 특별업무보고회에서 제주개발공사 이경호 사장 직무대행이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 제주 미래산업의 갈 길 미국서 모색

### 드레이퍼 대학·테슬라 방문 원 지사, 인재양성 등 논의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스타트업 육성기관인 미국 드레이퍼 대학(Draper University)과 전기차 생산기업인 테슬라의 프리몬트(Fremont) 공장을 방문해 제주의 미래산업 육성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첨단 기술 연구단지인 실리콘밸리와 세계 최대 전자제품 박람회인 세계가전전시회(이하 CES) 2020에 참석하고 있는 원 지사는 7일 오전(한국 시간) 드레이퍼 대학을 방문해 아슬라 나담(Asra nadeem)총장과 혁신

스타트업 육성 방안 및 청년인재 양성 관련 의견을 나눴다.

드레이퍼 대학은 전세계 창업가가 창업을 위해 찾는 곳으로 아이디어를 키워주는 곳이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대만, 인도, 아프리카, 바티칸 등에서 협업프로그램 진행 중이다.

해의 성공사례인 드레이퍼 대학의 커리큘럼·창업기업 육성방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창업 장려 프로그램 및 기업가와 네트워킹 프로그램들을 제주의도에 어떻게 적용할지가 필요하지, 제주청년들의 창업 증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는 오는 4월 아슬라 나담(Asra nadeem) 총장을 제주에 초청해 더큰내일센터, 제주창조경제

혁신센터, 제주스타트업협회 등과 스타트업 커리큘럼을 협의하기로 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제주의 스타트업 생태계와 일자리 창출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후에는 테슬라 프리몬트(Fremont) 공장을 방문해 제주도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조상윤기자

## 제주도의원 재보궐선거 예비후보

성명·연령·정당·직업·경력 순

- ▶ 동홍동 ▷ 박성현 ▷ 50 ▷ 무소속 ▷ 상업 ▷ 전 육군철보부대 부관참모, 전 제주 ASEM유치표어 공모 최우수



## 선택 2020 제주의 미래 D-97

### “서민경제 살리는 데 큰 역할할 것”

#### 제주시갑 고경실 예비후보 민생탐방

자유한국당 고경실 예비후보(제주시갑·사진)가 민생정치 실현을 위한 민생탐방을 이어가고 있다.

고 예비후보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일 한림 오일장에 이어 7일 제주시 오일장을 방문하는 등 민생현장을 찾아가 여론사항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상인들의 걱정은 대부분이 경제였다”면서 “정쟁에만 신경 쓰지 말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국회의원에 당선돼 서민경제를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상인들은 ‘현 국회의원은 평생시에는 서민경제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가 선거 때만 되면 마치고 가버려’ 전부 해결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서민들의 아픔을 헤아려 주는 일머리를 아는 새로운 인물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은지기자



###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신설할 것”

#### 제주시갑 고병수 예비후보 정책 공약

정의당 고병수 예비후보(제주시갑·사진)는 8일 “컨트롤타워 없이 추진되어 온 다문화가족정책을 다 뜯어 고치겠다”고 약속했다.

고 예비후보는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린 이자스민 전 의원 초청 이주민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다문화가족정책으로 대변돼 온 이민정책은 여전히 우왕좌왕이고 이민과 이주민에 대한 정책적, 법적 정의조차 존재하지 않는 게 실태”라면서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도 중구난방으로 쪼개어진 채 운영되고 있어 이로 인해 각 부처별 중복된 사업이 시행되는 등 가뜩이나 부족한 이민정책 예산이 줄줄 세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고 예비후보는 이어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민사회기법본을 제정하겠다. 이민정책 컨트롤타워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오은지기자



### “엄마 정치”로 사회 문제 해결

#### 제주시을 강승연 예비후보 첫 행보

올해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주시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자유한국당 강승연(65·사진) 예비후보가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다.

강 예비후보는 8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의 마음을 보듬는 ‘엄마 정치’를 하겠다고 결심했다”며 “여성의 부드러움과 섬세함으로 때론 제주여인의 강인함으로 사회의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9대 총선에서 여성 후보로 출마해 아쉽게도 2위를 기록한 바 있다”며 “그동안 복지센터와 병원의 한 귀퉁이에서 24시간 간호·간병을 하면서 환우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숙고 끝에 두 번째 도전을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제2공항 추진 ▷4·3특별법 개정안 처리·국가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제주 동·서부 거점 종합 의료센터 구축 등을 공약했다. 송은범기자



### “구국의 심정으로”... 총선 출사표

#### 서귀포시 허용진 변호사 출마 회견

허용진(63·자유한국당·사진) 변호사가 올해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로 했다. 선거구는 지난 선거와 마찬가지로 서귀포시다.

허 변호사는 8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국의 결단으로 일어난 의병장의 비장한 심정으로 출사표를 던진다”고 밝혔다. 허 변호사는 “추락을 거듭하는 경제지표 속에서 서민들만 죽어가는 세상으로 변해버렸다”며 “무엇보다 개탄스러운 것은 그동안 얼굴조차 비치지 않던 정치인들이(이제와서) 서민들의 구세주인양 행세하며 돌아다니기 시작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제2공항 건설 신속 추진 및 모노레일카 설치 ▷서귀포시 4차 산업 유치·의료수준 향상 ▷4·3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 마무리 등을 약속했다. 송은범기자



## 제1기 제주도 공공건축가 34명 공모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건축의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제주의 공공건축과 도시의 품격향상을 위해 제1기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가 공모 오는 20일까지 공개모집(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공공건축가는 공공건축물 및 공간 환경 사업의 기획

부터 설계, 시공 및 사후관리에 이르는 사업 전반에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공모는 공공건축가는 34명으로 제주지역과 전국단위에서 제주 발전을 위해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헌신과 봉사의 자세로 참여할 것

속, 도시계획, 조정 등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공공건축가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응모방법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란을 통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오는 20일까지 도 건축지적과로 방문 접수하거나, 전자우편(yandm79@korea.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제주 4·3으로 희생된 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

**제주 4·3 동복리 희생자 합동위령제**

올해는 제주 4·3으로 주민들이 희생당한지 71주년 성상을 맞습니다. 동복리에서는 제주 4·3으로 인해 주민 130여 명이 무고하게 희생을 당한 영령들의 원혼을 위무하고 화해와 상생의 정신으로 평화를 함께 일구는 동복리 합동 위령제를 다음과 같이 봉행 하오니 4·3 유족 관계자와 도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 2020년 1월 13일(월요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 구좌읍 동복리 4·3희생자 위령탑 공원

**제주 4·3 희생자 동복 유족회**

**산악인 오희준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대원 모집**

산사나이 오희준은 히말라야 8,000m 10좌를 한번의 실패도 없이 등정했으며, 남북극점까지 횡단하면서 세계 산악인으로서 대한민국을 알렸습니다. 삼과 죽음의 경계에서 도전정신을 남기고 간 오희준님은 지금도 히말라야의 품에서 아직도 도전을 하고 있다고 모릅니다.

**산악인 오희준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일시** 2020년 1월 19일(일) 08:00  
**장소** · 야구장앞 시계탑 집결 · 서귀포점: 08시 토평동 오희준 추모공원 집결

·인원: 선착순 40명  
·비용: 10,000원(교통비및 산악보험) **농협 351-1060-7931-53 사)산악인오희준기념사업회 등산교실**

·준비물: 식수 및 산행에 필요한 모든 장비 (※도시락 자참하지 마세요)

·산행코스: 미악-대병악-소병악-상천리

**산악인 오희준 그는 누구인가?**

1970년 8월 16일생 1989년 2월 서귀포중학교 졸업  
1989년 3월 제주대학교 입학, 제1대 산악회 가입  
1999년 5월 20일 내일 히말라야 초호유(8,201m)등정  
2000년 7월 30일 파키스탄 히말라야 브로드피크(8,047m)등정  
2000년 10월 29일 파키스탄 히말라야 시파방(8,031m)등정  
2001년 4월 29일 내일 히말라야 로체(8,516m)등정  
2001년 7월 22일 파키스탄 히말라야 K2(8,611m)등정  
2002년 5월 4일 내일 히말라야 안나푸르나(8,091m)등정  
2004년 1월 12일 남극원정 44일간 세계최단기록 성공  
2006년 5월 1일 54일간 도보로 북극점 도달  
2006년 5월 11일 내일 히말라야 에베레스트(8,848m)등정  
2006년 7월 8일 파키스탄 히말라야 가시브를 1월(8,068m)등정  
2006년 7월 31일 파키스탄 히말라야 가시브를 2월(8,035m)등정  
2006년 9월 20일 내일 히말라야 마나슬루(8,156m)등정  
2007년 베링해협 횡단  
2007년 5월 16일 에베레스트 남서벽 코리안루트 개척중 캠프4지점인 7,700m 지점에서 "산사나이 하늘을 오르다"  
2008년 9월 30일 채록훈장 명예장수훈(채록훈장 명예장수 제511호)

**사)산악인오희준기념사업회 이사장 현 학봉**

·연락처: 사)산악인오희준기념사업회 사무국(010-9838-6552)

**해안요양원**

**입소 어르신을 모십니다**

**입소정원 : 84명 24시간 요양시설**

월신마을 한국주방 노형오거리방향  
신래안고깃길 서부경찰서방향 해안요양원 월신마을 하위  
월신마을 한국주방 노형오거리방향 해안요양원 월신마을 하위

제주시 월신남길 159-15 (해안동)  
T. 064-712-7769 F. 064-711-4870

**Silver Smile**

**노인학대신고 24시간 상담전화**

**1577-1389**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www.sgpnoin.org  
운영법인: (사)대한노인회서귀포시지회